

광주중심교회 소식(여섯 번째)
(The Letter of Kwang-ju Center Church)

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.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(With Corona)을 보내고 온 국민들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

교회를 개척하고 2년 반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읽고 있는 *The Christian Ministry* (『참된 목회』, 찰스 브리지스 저)는 저의 지난날의 목회와 현재의 목회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“목회 사역이라는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은 합법적인 권위를 통하여(갈1:1; 행13:2,3)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책임 있고 풍성한 복과 함께 그 직책을 위임 받으며(딤후 1:11)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그것이 구주의 영광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까닭이다.”(p.29)

현재 저의 상황은 삼중고(三重苦)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. 첫 번째 어려움은 지난해 3월 25일에 발병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다는 것과 두 번째 어려움은 개척을 하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여섯 식구와 막내 딸 친구, 이렇게 7명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고, 셋째는 네 자녀를 키워나감에 있어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압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뇌경색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니 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, 그리고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하고,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도 성도가 늘지 않아서 최근에 전도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전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마스크와 건빵과 전도지로 아내와 함께 노방전도(거점전도)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 부부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맡기고 있습니다.

감사한 것은 지난해 가을에 논문이 통과 되면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게 되어 오는 2월에 학위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. 앞으로 군소 신학교라도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도전해 보고 싶고, 몸이 더욱 회복이 되어 더 열심히 목회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행복한 목회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의 기도제목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○기도제목○

1. 목회사역과 전도사역이 성실하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.
2. 재활 운동을 통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
3.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늘 채워주시옵소서.
4. 신학교 강의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.

2022년 1월 26일(수)

최진수 목사, 이선민 사모, 바울, 요한, 요셉, 셋별 드림

* 후원계좌 : 농협 351-1068-9375-63(최진수).

* 문의 : 010-4360-5919(최진수 목사), 010-8314-8880(이선민 사모)